

2026.1.29.



생명을 살리는  심폐소생술

「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」 개정

달라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으로
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!

생존 사슬을 통합하고 단순화 하였습니다!

생존 사슬이란?

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**생명을 살리기 위해**
제공되어야 하는 **필수적인 요소들의 연결고리**입니다.

- ✓ 성인·소아·병원 밖·병원 내 생존 사슬을 하나로 통합
- ✓ 전문소생술+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
- ✓ 재활·회복 사슬을 별도 고리로 강조

2025년 생존 사슬(개정)



기본소생술 이렇게 달라졌어요

-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(AED) 확보 및 사용 지도
- 심폐소생술 순서는 기존 지침 유지, 가슴압박 시 편한 손을 아래로 시행

1.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

-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 가슴조직을 피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



2.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

-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
-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꺼리는 경우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



전문소생술 핵심 변화는?

- **엎드린 자세**에서 기관내삽관이 되어 있는상태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즉시 누운 자세 변경이 어렵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, 자세 변경없이 심폐소생술 시도 고려
- 기존 심폐소생술로 **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을 시**, 가능한 경우 **체외순환 심폐소생술** 고려



소생 후 치료부터 소아·신생아 소생술 까지,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

소생 후 치료

자발순환회복 후 혼수인 성인 환자에게 체온유지치료 목표 온도 상향 권고

기존 32~36°C → 33~37.5°C로 상향

소아 기본소생술

1인 구조자는 '두 손가락 압박법',
2인 이상의 구조자는
'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' 권고



변경 전(두 손가락 압박법)

**구조자 수와 상관없이
'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'
사용 권고**



변경 후(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)

신생아 소생술

기존에는 출생 직후 10~20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자발순환회복이 없을 경우, 심폐소생술 중단에 대한 논의를 출생 후 10~20분 정도에 고려하였으나, 이번 개정에서는 20분 정도에 고려하는 것을 권고

질병관리청은 이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

**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,
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향상**을 위해
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

더욱 자세한 가이드라인은
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